

I. 개 요

1. 일시 : 2013. 06. 08 (토) 16:00~18:00
2. 장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3. 발표자 : 정혁 교수(KDI School)
4. 참석자

허 인 팀장	(KIEP 국제금융팀)
최형선 교수	(경희대학교)
김진일 교수	(고려대학교)
김형석 교수	(서강대학교)
박선영 교수	(카이스트)
이미혜 전문연구원	(한국은행)
신관호 교수	(고려대학교)
김성현 교수	(성균관대학교)
강규호 교수	(고려대학교)
김영세 교수	(성균관대학교)
이우현 교수	(경희대학교)
김영식 교수	(서울대학교)
윤 택 교수	(서울대학교)
정용승 교수	(경희대학교)
편주현 박사	(KIEP)
조두연 교수	(국민대학교)
원승연 교수	(명지대학교)
이대기 박사	(금융연구원)
박영준 교수	(아주대학교)
오지윤 박사	(KDI)
이종욱 교수	(서울대학교)

5. 제 목

- "Dynamics of Firms and Trade in General Equilibrium"

II. 주요 발표내용 (상세 내용 별첨 참조)

- 본 연구는 거시경제적으로 수출과 수입이 실질환율의 움직임과 이탈하는 현상을 설명하고자 함.
 - 거시경제 수준에서 본 수출, 수입은 이론적으로 실질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이 옳으나, 실증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실질환율의 움직임이 기업 각각의 수출입에는 영향을 주나 거시경제 수준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 현상을 설명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형에서는 각 기업들이 제각각 기업에만 영향을 주는 충격과 거시경제 전반의 충격에 노출됨.
 - 각 기업들은 어떤 상품을 수출할 지를 결정하고 진입과 퇴출을 결정함.
 - 본 모형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는 실제 일본의 무역에서 기업수준과 거시경제 수준에서 수출입을 비교함.

III. 주요 논의사항

- 만약에 한 기업이 수출과 수입을 동시에 하는 경우, 그 기업의 수출에서 수입을 차감한 순수출의 변동을 가지고 거시경제수준의 수출입을 파악하는 것인가?
 - 기업별 수출입을 더하여서 거시경제 수출을 계산하는 것은 맞으나, 기업별로

순수출을 계산하여서 마이너스 일 경우는 수입, 플러스 일 경우는 수출로 계산하는 것은 아님.

- 전체 수출과 수입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시경제 수준에서의 수출입은 기업수준에서 순수출이 플러스일 때 더한 것이 아니라 총 수출과 수입임.
- 기업수준에서는 수출이 실질환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으나, 거시경제 수준에서의 수출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은 예를 들어 삼성이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질환율의 변동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나머지 기업들의 수출이 실질환율에 영향을 크게 받아도 전체 거시경제 수준에서의 수출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인가?
- 정확함.
- 삼성의 수출의 실질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나머지가 실질환율에 영향을 받는 경우 기업 수준에서 수출이 실질환율에 영향을 받는 지 실증 분석을 하면 나머지 기업의 수가 많을 것임으로 실질환율이 수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날 것임.
- 그러나 전체 수출의 시계열을 가지고 분석할 경우 삼성의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실질환율의 변동이 수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날 것임.
- 수출을 산업별로 분석하면 실질환율의 변동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나 이것이 거시경제 수준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 산업별로도 실질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봐도 앞서서 주장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남.
- 모형에서 기업의 규모와 수출을 결정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 보이는데 이러한 관계는 모형의 어떠한 가정으로 등장하는 것인가?
- 수출하는 데는 수출에 따르는 고정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임.

- 따라서 기업의 생산성이 높을 때 수출에 따르는 고정비용을 감내하면서 수출을 결정함으로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수출을 하게 되고 이런 기업들의 규모가 커지게 되는 것임.

□ 기업의 생산을 결정할 때 진입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데, 진입비용의 형태가 매물비용으로서 작용하여 첫 기에만 부과되고 이후 기에는 부과되지 않는 것인지 혹은 매기 부과되는 고정비용인가?

- 모형에서는 진입비용에 대해서 매물비용 혹은 고정비용으로 둘 다 처리할 수 있으며, 각각에 있어서 모형의 결과와는 상관이 없음.

□ 기업이 새로운 생산물을 만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기존의 생산하고 있는 품목이 아닌 다른 종류의 생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함.

□ 기업이 생산하는 품목이 많아질수록 그에 따르는 관리 비용도 증가하게 되는가?

- 관리비용은 생산 품목의 증가와 정비례함.

□ 만약에 기업이 생산을 하던 품목을 중단한 경우 이후에 다시 생산을 할 수 있는가?

- 진입비용을 지불하고 관리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감내할 수 있다면 모형에서 기업이 다시 생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기업이 모형 내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나?

- 기업의 생산성을 내생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은 모형에서 허용되지 않음.
- 다시 말하면 기업의 R&D투자는 없음.

- 기업이 생산한 품목을 내수시장과 수출시장에 모두 판매할 수 있는가?
 - 내수만 판매하는 기업이 있을 것이나, 수출하는 기업은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하게 됨.
- 모형내 기업의 입장에서 굳이 수출에 따르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수출을 해야 하는 유인은 무엇인가?
 - 기업의 외연을 확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옴.
- 수출시장에서 생산품의 가격이 내수보다 높은가?
 - 모형에서는 수출시장과 내수시장의 제품 가격은 같음.
- 기업간의 완전경쟁을 가정하는가?
 - 기업간의 독점적 경쟁 시장을 가정하여 기업의 이윤은 0보다 큼.
- 기업의 한 품목을 내수와 수출을 위해서 생산할 경우, 다른 품목을 생산하는 것처럼 취급되는 것인가?
 - 내수와 수출의 생산을 나누어 취급하나, 같이 생산해서 나누나 모형에서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 생산성이 높은 기업만 수출하게 되는가?
 - 수출에 따르는 비용이 존재함으로 생산성 변수에 따라서 임계치가 존재하여 임계치 이상의 기업만 수출을 하게 됨.
- 관리비용 (κ)는 자중손실(deadweight loss)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 자중손실은 아니고 관리비용을 내야만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음.

- 따라서 관리비용은 최소한의 R&D를 의미할 수 있음.

□ 소비자의 효용함수의 변수로서 실질해외채권(D^*)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나?

- 환율의 변동성이 모형에서 유추되는 것보다 실증적으로 큰 데 이에 대한 조정의 방법 중 하나임.

□ 소비(C)에 외국 생산물도 포함되는가?

- 무역에서 중간재만 허용해서 포함되어 최종생산물에는 들어가지 않음.